

## 함께 드리는 승리의 기도

성경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 ~ 16절>

[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인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 가족,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스스로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다스릴 약속의 자손, 곧 **주인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여호와 닛시’**라고 기억되는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을 다스릴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1.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다면,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도, 사람들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끄시도록 하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당신께서 이 일을 직접 해결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기도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고, 승리 자체라는 증거입니다.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원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 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어려움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승리를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 2. 함께 하는 기도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표증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팔을 들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지친 모세의 팔을 붙잡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합니다.

아론과 훌의 행동이 모세처럼 직접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낯설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모세의 손을 양 옆에서 붙들고 있는 것도, 모세가 기도한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은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기도할 수 없고, 반드시 피곤하여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아론과 훌이 단순히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을 통하여 기도가 살아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실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불의 기도,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닮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전심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연약해서, 제자들처럼 졸수도 있고, 피곤함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당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봐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온전한 승리로 이어지기까지, 팔을 붙잡고 있어 줄 기도 짝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 <기도제목>

1.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2.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허락하소서.